# 라이프스타일을 팔다

## (여호수아 5:1~15)

1.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을 팔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1983년에 도쿄 시부야의 다이칸야마에 35평 남짓한 '츠타야'라는 동네 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서점이 지난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1,444개의 지점과 4,918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IT시대에 성공한 오프라인 서점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굉장한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책을 많이 읽지만 그러한 일본도 출판계가 엄청난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출판사 수가 1997년에 4,600개였다가 지금은 1/3이상이 폐업을 했고, 서점도 1999년도에 비하면 24,000개의 서점 중에서 10,000개에 달하는 서점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홀로 성장 중인 서점이 츠타야 서점인데 놀랍지요. 35평으로 시작한 서점이 이제는 55m의 길이의 매거진 스트리트를 만들게 되고, 양쪽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서적을 파는 곳이 늘어서 있고, 음반이나 영상콘텐츠까지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공원처럼 이루어진 곳에 카페나 음식점, 라운지 등도 들어왔습니다. 커피나 음료수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대형서점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심지어 자전거까지 판매합니다. 서점 주인의 이름이 마츠다 무네아키인데 "라이프스타일을 팔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두 권의 책 내용은 서점에서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자본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자본'이란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삶을 제안해줄 수 있고, 삶을 개선시킬 기획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책이나 음반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팝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

일을 접목시키는 것인데, 이 서점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도쿄로 여행을 가면 반드시 이 서점을 들린다고 합니다.

이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이야기합니다만 결국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상하게도 한 번 부흥을 맞이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만을 전해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인한 라이 스타일을 전했어야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천당만 전하고 구원만 전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이 세상의 좋다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경쟁에 뛰어들어서 채택한 라이프스타일에 복음을 얹어줍니다. 지금 라이프스타일로 추구하는 것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적 라이프스타일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적 라이프스타일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탕을 사려면 반드시 제과회사에서 포장을 해서 팝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해서 며느리에게 가져다 줄 때에도 반드시 용기에 담아서 줍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만을 알맹이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천당만을 위한 복음을 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당 가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시장에서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음적 라이프스타일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복음으로 생활화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실패와 쇠퇴는 천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고, 복음적 라이프스타일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 천당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뿐이지 삶의 현장에 나가면 복음을 다 잊어버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잊으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끌고 들어오는 교인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를 하더라도 교인들이 가지고 온 마음의 내용물은 전혀 하늘나라를 지향하고 있지도 않고, 복음이 가리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것에 맞춰주려고 오히려 따라 갑니다.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격려한다나? 위로한다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교회는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선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요단강을 건넌 뒤에 길갈에 머물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웬 할례냐?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

았지만 출애굽 2세대에게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를 살기 위해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의 언약이 반드시 필요해졌기에 할례를 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그 때가 보리를 거둘 때였는데 점령한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수확해서 음식을 해먹으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내는 다음날로 만나가 그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행하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칼을 들고 서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이 사람이 자신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경배하려고 하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할례와 처음으로 지내는 유월절과 군대 대장을 만난 이야기는 복지에서 살게 될 선민의 라이프스타일 3대 요소입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이 몸에 익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하고 복음을 담고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라이프스타일에 포장되어서 전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생활방식이 함께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나가면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을 띠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라이프스타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봅니다.

앞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이 가나안 종족들에게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강물을 세우고 마른 땅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하면 '살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꼼짝을 못합니다. 창세기 34장을 기억하시지요.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하자, 거짓 계약을 맺고 할례를 하게 해서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파괴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도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다 누워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다 전멸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 창17:1절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는 표식을 몸에 두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보다도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존

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전쟁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전쟁이 굉장히 큰일이지만 그보다 급한 일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할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이프스타일의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사장님 앞에서 꾸중을 듣게 되었어도 먼저 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의 의미이고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 결정되는데 할례가 바로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가깝게 여기고 추구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고 궁극적인 가치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초 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어린양의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초 태생이 다 죽는데 어린양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상대하는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초 태생으로 비유되고 장자로 비유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장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에 있고 시장에 있고 놓여 있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입니다. 할례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셔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내 몸에 병이 났다고 해도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첫 번째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상황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애굽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죽도록 되어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게 죄이고 그것이 죽을죄라는 것이지요. 죽을죄대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살려두신 이유는 어린양이 죽었습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가 돈이고 자식이고 사업이고 한 번도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외의 첫 번째 관심사에 사로잡혀 살던 내가 죽은 것이 어린양이 죽은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양의 피를 바른 것'은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여기는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이 아닌 상태로 살던 자들이 다 죽은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첫 번째 관심사로 살았던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나중에 상번제로 옮겨지게 됩니다. 출29:38~46절에서 상번제를 처음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이 상번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중에 거하리라"고 하시는데 유월절의 의미가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이것이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들이 튀어 올라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관심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심사가 올라올 때

에 지금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관심사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관심사를 가지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장님 앞에서 거래처 직원들 앞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만나가 끊어지는 것'과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것'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인류역사상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첫 번째 관심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고, 취미생활에 관심이 가 있고 정치에 관심이 가있고 사업에 관심이 가있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유월절의 이야기와 만나가 끊어진 것이 같이 나온 이유는, 이제 복지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텐데 만나와 농사의 차이는 하늘에서 오느냐 땅에서 나오느냐의 차이일 뿐 만나 자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복지에 들어가면 땅에서 솟아나는 만나를 먹고 살게 될 깃이므로 절대로 농사지어서 먹고 산다는 것에 첫 번째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으로 연관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할례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우신 분이고,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했고, 유월절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꾸만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세상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죽음으로서 유월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번제로 옮겨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마치 적들이 둘러싼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 것 같이, 우리에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있지 않은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 건강, 자식, 돈, 사업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것이 할례의 의미이고, 이것을 위해 유월절이 존재하는데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온 관심사들에 대해서 내가 죽습니다. 아무것도 관심사가 없는 백지 같은 마음으로 부활해서 내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일입니다. 선민이라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정치권 안에서도 경제계 안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선민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고 자리 추구한다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민의 라이프스타일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 삶은 누가 살아주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 누가 살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군대 대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는 일에 온힘을 다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증거 삼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조차 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깝게 유지되는 할례의 의미를 되살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의 의미를 되살릴 때, 직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대상이 들어오는 죄적 습성을 죽이기만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군대 대장은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시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형상화 된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닐 때에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형상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없애고 하나님 이외의 처음 관심사로 들어온 세상 것을 껴안고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떨어져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들어온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장에 직장 대장을 보내십니다. 엄마가 아이와 있을 때에도 아이보다 하나님과 밀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대장을 보내십니다. 가장에서는 가정 대장을, 결혼관계에 있으면 결혼 상대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온 결혼 상대자를 죽이면서 유월절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위해서 연애할 생각도 하지 않고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혼 대장을 보내십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면 시장 대장이 오신다는 것이지요.

결국 복지를 사는 선민의 라이프스타일의 3요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유월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군대 대장이 뜻하는 대로 이 세상은 성령님이 오셔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구약에서 선언하는 삼위일체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할례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양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상태라야 군대 대장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돈을 밀착해도 기쁘고 자식의 일류대학을 밀착해도 기쁘고 승진과 밀착해도 기쁜데 하나님과 밀착하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거지처럼 세상 것을 좀 더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상태가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행하시게 됩니다. 직장에 있으면 직장 대장이 행하시고, 가정 대장이 행하시고, 시장 대장이 행하시고 연애할 때는 연애 대장이 행하십니다. 이렇게 삶에서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충족시키고, 그 충족됨이 삶에 나가서 유지될 수 있기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전해야(팔아야) 합니다. 그것이 몸에 익숙해짐으로 교회도 강해지고 삶의 현장에서도 군대 대장들로 상징되는 삶의 대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신을 신고 걸어간 흔적이 이력인데 이제부터의 여호수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호수아의 이력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 써가는 이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대장 되셔서 행하시는 이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복음을 라이프스타일과 싸서 함께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